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의 정치적 동학*

양길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 논문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동학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맥락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는 세 가지의 정치적 동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는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5월총선으로부터 연원하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작용과 파급효과로 인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얀마는 아웅산수지라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언제나 폭발적인 추동력을 드러내 보여줄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얀마는 대외경제개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와 압력에 일정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적 맥락의 구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파급효과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역할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잠재적 추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 문제의 제기

민주화에 관한 한 미얀마의 미래는 비관적인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다.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도 미얀마군부는 네윈의 막후조정을 통해 군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군의 단합된 물리력을 통해 여전히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tate Law &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에 의한 통치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미얀마는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과 1990년 5월총선이라는 크게 두번에 걸쳐 민주화의 정치적 계기를 맞았었지만 이를 실현시키지 못해 미완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과 관련한 구조적 조건은 암담하다. 장기간에 걸친 일당군부 독재와 경제적 침체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제와 억압 그리고 고립으로 점철해 있는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작업은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 버릴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 논문은 구조적 제약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민주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정치적 동학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치과정적 맥락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는 세 가지의 정치적 동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는 좌절된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연원하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작용과 파급효과로 인해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얀마는 아웅산수지라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언제나 폭발적인 추동력을 드러내 보여줄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얀마는 경제개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와 압력에 일정부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적 맥락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파급효과와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역할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압력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잠재적 추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정치과정상의 연쇄적 파급효과

1. 1988년 민주항쟁과 그 정치적 영향

미얀마의 내원정권은 장기간에 걸쳐 군부통치를 지속시켜 온 대표적인 제3세계 권위주의정권 가운데 하나이다. 대외적 고립과 폐쇄로 인해 미얀마의 정치과정과 경제적 상황이 외부세계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원정권의 장기적 지속성은 하나의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이처럼 미얀마에서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격변이 1988년 분출하여 광범위하게 혁명적 상황으로까지 치달아 나가게 된 궁극의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원정권의 경제실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불신과 거부감이 내면적으로 팽배하여 있었다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민주항쟁의 근본적 추동력은 1962년 ‘착취없는 공평한’ 사회라는 지고한 이념을 내걸고 출범한 내원정권의 버마식 사회주의가 통제경제의 비능률과 생산성저하 등의 구조화된 경제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표류해 온 데서 분출되어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1988년 미얀마의 민주항쟁은 ‘버마화’의 기치아래 군부권위주의의 효용성을 내걸고 등장한 내원정권의 버마식 사회주의가 실패한 데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국가발전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위주의정권과는 다른 형태의 정권의 등장을 요구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추동력이었다.

1988년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은 일종의 기대-좌절의 산물이다. 데이비스의 지적처럼 “사회경제적 발전의 실제 상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보가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지금은 막혀버린 그 기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데이비스, 1984: 63)함에 따라 1988년 민주항쟁이 폭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내원정권의 권위주의적·폐쇄적 통치 결과는 1980-8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에서 0.35%로 떨어지면서 “공업생산이 국내소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무역액의 1/3이 넘는 대규모 밀수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외채는 87년 36억 달러 채무변재율(수출액에 대한 외채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은 86년 50%를 넘고 87년에는 60%에 달하는”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만다 (김상옥, 1989: 116). “1988년 3월의 경우 쌀의 암시장가격이 정부의 쌀배급가격보다 700%나 넘게 치솟는다”(Maung, 1990: 615) 등의 경제파탄 속에서 내원정권은 1987년 2월 국제적 망신을 무릅쓰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UN에 대해 외채조정을 포함하여 우선적인 원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빈국(LLDC)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년 12월 UN으로부터 이를 정식 승인받기에 이른다. 이로써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경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버마인 자신의 경제복권을 노린 민족주의적 선택”(노부요시, 1974: 74)의 버마식 사회주의가 실패하였음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른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유엔의 최빈국 결정은 미얀마 국민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힘으로써 루시안 파이가 얘기하는 “실패의 충격”(Pye, 1990: 15)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내원정권의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만다.

내원정권의 경제실패에 대한 불만과 장기집권에 대한 염증이 1988년 미얀마 민주항쟁으로 분출되어 나가게 된 계기는 조그마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확대·재생산되어 나간 일련의 시위와 과잉진압 그리고 내원정권의 정치적 둔감성으로부터 주어진다. 1988년 3월 소수 학생과 지역 청년들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다시 시작된 학생시위는 3월 18일 최류탄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42명의 학생이 사망하게 되면서 “정치적 쟁점”(Lintner, 1994: 275)으로 비화하여 나가게 된다. “피의 금요일”이라 불리워지는 1988년 3월의 유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6월 21-22일의 시위에서 또 다시 양곤대학생 9명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유혈진압으로 인해 분노를 느낀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6월 24일에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만달레이시와 페구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7월 22일에는 프롬시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처럼 급박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1988년 7월 23일의 BSPP(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버마사회주의계획당) 긴급특별회의는 사태전개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즉, BSPP 긴급특별회의에서 내원은 1)지난 “3월과 6월에 발생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건들에 대해 비록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나이가 많은 점도 감안하여 당의장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바, 당의 허가를 간절히 바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80)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2)9월말경에 미얀마가 계속 유일정당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당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언명했다.¹⁾ 전혀 예기치 않게 내원에 의해 언명된 일당독재 폐기 가

1) 내원이 다당제 도입과 공직사직을 언명하게 된 것은 1)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인 BSPP를 다당제경선의 자극을 통해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내원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2)더

능성은 곧 위로부터의 자유화 일정을 포함한 평화적인 정치변동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8년 7월 사회주의계획당은 내원의 사임을 받아들이면서 민간기업 확대, 외국과의 합작투자 확대, 국내상거래 통제완화 등의 경제개혁안은 승인하였으나 미얀마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안은 기각하고 만다. 국민투표안은 거부되었지만, 내원 이하 산유대통령 등 6명의 지도자 - 나머지 4명은 아예코(Aye Ko) 당서기장, 세인르윈(Sein Lwin) 부서기장, 툰틴 (Tun Tin) 부수상, 카우틴(Kyaw Tun) 국방장관 - 들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이르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내원의 사임으로 인해 내원-산유의 직접적인 통치는 끝나고 미얀마는 제도로서의 군부의 손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제 제도로서의 군부내 강·온파간 대립에서 어떤 세력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미얀마의 장래가 결정나게 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랑군의 도살자”²⁾로 불려지는 악명에도 불구하고 내원이 제시했던 국민투표안을 적극 반대하여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내원의 측근으로서 당과 군부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가장 강경하게 대변해 나가는 데 성공한 세인르윈이 당의장 겸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이러한 BSPP의 정치적 둔감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나간다. 일찌기 고전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제임스 브라이스가 지적했듯이 “과거 민주주의를 가져왔던 유일한 길은 명백한 해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바램”(Bryce, 1921: 602)으로부터 주어질 경우가 많았다. 1988년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은 바로 명백한 악으로서의 세인르윈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데에서부터 거대한 추동력을 분출시키면서 진행되어 나가게 된다.

1988년 8월 2일 학생들의 반정부시위에 승려들도 동참하게 되는데, 마침 이 날은 지난날 영국의 식민통치의 종결을 외쳤던 1938년 영웅적인 석유노동자파업의 50주년이기도 하여 광범위한 반정부시위의 힘을 얻어낼 수 있었다 (Lintner, 1994: 276). 8월 3일 랑군시에 계엄령이 발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오전 8시 8분 10만 이상의 시민·학생이 랑군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여 나간다.³⁾ 랑군시민과 학생, 승려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의 발포로 최소한 200명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이에 흥분한 시위대는 무장을 하기 시작하여 코아송시와 폐구시를 시위대가 장악하기에 이른다. 계엄령과 무자비한 진압을 통한 사태수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8월 12일 세인르윈이

욱 중요하게는 이미 저질러진 유혈사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도 내원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O'Brien, 1991: 140).

2) 세인르윈은 1962년 내원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학생시위와 1974년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반정부학생 시위 그리고 1988년 3월과 6월의 학생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명령했던 장본인이다 (Steinberg, 1990: 26).

3) 여기에는 미얀마 특유의 민속적 주술이 미묘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8이 4개나 겹치는 숫자는 1527년 8월 8일 아바(Ava)왕조가 멸망했던 날과 일치하게 됨에 따라 이는 마치 내원정권의 종식을 상징적으로 예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redholm, 1993: 61-62; Steinberg, 1990: 29).

사직하는 가운데, 만달레이에서 승려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 랑군시 변호사협회 항의성명, 5천명의 학생·시민의 랑군시 시위, 만달레이와 모니와에서의 각각 10만과 25만의 시위에서 보듯이 반정부시위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승려, 전문지식인들에게로 확대되어 나간다. 과격한 시위대처 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미얀마군부는 8월 19일 내원의 법률고문이었던 민간인 마웅마웅을 당의장 겸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문민화의 외양을 갖추는 한편 다당제의 수용과 계엄령의 철회, 랑군대학 학생회관 건립 등 온건한 조치를 통해 사태의 수습을 꾀하여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온건한 처방은 많은 피의 댓가를 보상하고 시위의 혁명적 열기를 식히기에는 너무나 늦고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제 사태는 마웅마웅의 온건한 조치하에서 더욱 많은 계층의 참여와 더욱 많은 요구를 담은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시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나갔다. 즉, 1988년 8월 19일 만달레이에서 공무원까지 합세한 10만명의 시위와 8월 22일 전국 총파업과 함께 만달레이, 모니와, 프롬, 타운지, 물메인, 빅토리아 포인트에서의 시위 그리고 8월 23일 전국적으로 50-70만 시위에 직면하여 마웅마웅은 8월 24일 랑군시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사태수습을 도모하려고 한다.

1988년 8-9월 미얀마의 준혁명적 상황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주의계획당은 1988년 9월 10일 다당제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다당제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9월 11일 미얀마 인민의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당제에 의한 민주주의적 총선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고, 1988년 9월 13일 소몽(Saw Maung) 국방장관은 군은 마웅마웅정부의 총선실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임을 천명했다.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몽의 언명 속에서도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100만명의 랑군시민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와 무역부가 무장한 시위군중에 의해 포위되는 등 마웅마웅정부가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된다. 특히 국방부 점거를 놓고 군과 시위대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준혁명적 위기상황은 미얀마군 지도부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미얀마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던 9월 17일 아웅산 수지는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민주화를 위해서 군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미얀마군의 양자택일은 1988년 9월 18일 내원을 만나고 나온 소몽 국방장관 겸 참모총장의 주도하에 19명의 군사령관들로 구성된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가 전권을 장악하여 나가는 것으로 귀결하고 만다.

군사정부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군중 2,000여명을 사살하는 무자비한 진압을 거쳐 강제로 평온이 이루어지고 1988년 9월 21일 소몽이 9인 군사내각의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다당제총선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단 막을 내리고 만다. SLORC에 의한 군의 정치개입은 기존의 정부를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항의로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는 군사정부를 구출하고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로서의 군부가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1988

년 9월 또 한번의 버마군의 정치개입은 “체도로서의 군부에 속한, 권력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서의 군부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군의 단결 및 영속적인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이르러 (정부로서의)군을 권좌로부터 축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스테판이 얘기하는 ‘체도로서의 군부에 의한 축출쿠데타’였다 (스테판, 1989: 58). 이 쿠데타로 인해 내원-산유정권을 지탱해 왔던 군인들은 물러나고 대신 여전히 내원의 막후 지도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신군부라 불리울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이 전권을 맡게 된다.

이로써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성립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의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즉,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1)기존의 질서와 부딪쳐가는 생생한 현장경험 속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신선한 충격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각성을 가져다 주었고, 2)거리의 시위와 홍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백가쟁명의 논쟁을 통해 기존의 권위주의적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주었다. 그리고 3)미얀마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권력장악자 뿐만 아니라 반대세력의 정치엘리트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향후의 권력엘리트는 민주화운동에서 제기된 최소공약수적인 요구사항인 다당제총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고, 4)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차별학살⁴⁾의 희생은 SLORC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가함으로써 SLORC에게는 ‘태생적 원죄’로서 작용하고 있다.

2. 1990년의 총선과 그 정치적 파급효과

1988년 9월 23일 소몽장군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군은 무기한 집권을 할 생각이 없으며,”(Weller, 1993: 5) 다만 “국내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언명과 함께 4개항의 과업을 제시하였다. 즉, 1)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2)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하며, 3)식량과 의복 그리고 주거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4)다당제 민주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⁵⁾ 이어 1988년 9월 24일 SLORC은 버마의 공식 국명을 1962년 군사쿠데타 이전의 이름인 ‘버마연방’(the Union of Burma)으로 환원하면서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는가 하면 1990년 5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정치일정을 제시하면서 사태의

4) 1988년 9월의 미얀마의 랑군은 1980년 5월 한국의 광주를 연상케 하는 무차별살상과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된 도시”(Bangkok Post, 22 Sept. 1988; Lintner, 1994: 286 재인용)처럼 보였듯이 그 이후의 정치적 파급효과도 군사독재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반감을 구조화시킴에 있어 공통점을 보이게 된다.

5) Working People's Daily, September 23, 1988(Guyot, 1991: 205에서 재인용); Weller, Democracy and Politics in Burma, p.142.

진정을 도모해 나간다.

1990년 4월말 SLORC의 제1서기이자 군정보국장으로서 SLORC의 실세 중의 한 사람인 킨눈(Khin Nyunt) 장군은 SLORC이 수행할 “4가지 과제중 3가지 - 이는 범질서유지, 운송확보, 식량외류 공급 - 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과제인 다당제 민주선거를 실시할 것”(Guyot, 1991: 208)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27일 총 93개 정당이 참가한 가운데 크게는 최대의 반정부연합체인 NLD⁶⁾와 군부가 암묵적으로 지원했던 NUP⁷⁾간의 양파전 속에서 치러진 총선의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은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다.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NLD는 총 485개 의석 가운데 392석을 획득함으로써 전체 의석 중 80%를 상회하는 압승을 거두었던 반면 NUP는 10석밖에 얻지 못하는 가운데 산(Shan)주의 소수종족을 기반으로 한 산민족민주동맹의 23석에도 못미치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NUP는 수도 랑군에서 한석도 얻지 못하는 냉대를 당하였는가 하면, 여당이 힘을 발휘하리라고 여겨졌던 농촌에서는 물론이고 군인가족들의 집단거주지에서도 NLD가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NLD의 승리는 유혈사태를 빚으면서 권력을 장악한 SLORC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아웅산수지가 탄압받는 미얀마 국민들의 상징으로 화하면서 표의 결집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미얀마 독립운동의 국부적인 아웅산에 대한 흠모가 아직도 지배적인 미얀마에서 그의 딸인 아웅산수지에게 거는 미얀마 국민들의 맹목적인 기대, 다시 말해서 정치적 경협이 없다는 제약을 넘어서서 이미 불신을 받고 있는 기성의 미얀마정치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참신성과 미얀마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에 헌신하는 아웅산수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미얀마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그대로 NLD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것이었다 (신봉길, 1991: 118-119).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얀마의 1990년 5월총선은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제기된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요구에 부응한 위로부터의 대응책이었다. SLORC이 5월총선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한편으로는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므로써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미얀마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시키려는

6)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국민민주당)는 1988년 9월 24일 의장에 아웅지, 부의장에 틴우, 그리고 아웅산수지를 사무총장으로 하여 미얀마의 90개 정당이 모여 결성된 미얀마 최대의 반정부결집체이다. 그러나 얼마 후 반공주의자인 아웅지파는 NLD 내의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과 함께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UNDP(Union Nationals Democracy Party: 연방민족민주당)를 설립하여 분가해 나간다.

7) NUP(National Unity Party: 국민통일당)는 1988년 9월 24일 사회주의계획당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개칭과 함께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고 재결성된 친군부 정당으로서 민족융화와 민주사회 그리고 개방경제의 실현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5월선거의 승산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SLORC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즉, 1989년 7월 이래 아웅산수지는 가택연금에 놓여있고 또 한사람의 유력한 야당지도자인 진직 국방장관 출신의 틴우는 선동죄로 3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있었으며,⁸⁾ 계엄령이 여전히 발효되어 있고 4명 이상의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등 정치적 집회와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2월말 현재 총 233개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선거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해 있을 정도로 5월총선에서의 SLORC측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1990년 5월총선은 정치적 자원과 조직 그리고 미얀마 유일의 합법적인 신문인 *Working People's Daily*를 통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SLORC의 입장에서 보면 다당제총선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득하고자 시도한 하나의 의례적 행사였지 야당에게도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민주화의 절차인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미얀마의 5월총선이 정치적 리더쉽을 놓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제정할 국회구성을 놓고 신군부세력과 범민주세력간의 경쟁에 한정된 것인 한, 민주화의 한 국면으로서의 5월총선의 정치적 함의는 그만큼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1990년 5월총선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첫째, 미얀마 야당은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권정치의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어 후보지지연설을 통해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실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장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의 5월총선은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의 출범을 가져다 주었다. 둘째, 5월총선은 선거에 문민정치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허용됨으로 해서 지난날 문민정치가들이 타락하고 분열되어 있어 정권인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등의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주장을 사실상 폐기시켜 버렸다. 5월총선은 이제 정치권력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행사되는 공유물인 것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게 된다. 셋째, 5월총선은 그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연계망의 확보를 통해 국내정치의 비민주성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1990년 5월총선은 NLD의 압승이라는 예상외의 총선결과를 통해 SLORC정권이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SLORC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아웅산수지와 NLD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하게 부각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8) 이외에도 예를 들면 민주평화연맹(League for Democracy and Peace)을 이끌고 있는 우누 전수상도 SLORC의 쿠데타 이전인 1988년 9월 9일 자신은 "1962년 내원에게 권력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지난 4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아직도 정통성을 가진 수상"(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186)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포한 임시정부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미얀마의 1990년 5월총선은 그 제한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어 나갔더라면 SLORC의 주도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첫발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떨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총선에서 NUP의 예상치 못했던 패배로 인해 SLORC은 정치사회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의 주요한 관문 하나를 통과하려던 미얀마의 ‘위로부터의 민주화’ 가능성마저 봉쇄해 버린다. SLORC은 1990년 7월 27일 21개항의 <1990년 제1호 선언>(SLORC Declaration No.1. 1/90)을 발표하고는 정권이양을 거부한다. 이 선언의 핵심은 5월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무는 새로운 헌법제정에 한정하며 안정된 신헌법이 제정되어 이 헌법에 의거한 새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계엄령에 의해 통치하는 군사정부인 SLORC이 계속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Weller, 1993: 194-196). 이 선언은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권리와 정치적 미래를 일방적으로 물리력에 의해 거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얀마군부에 의한 ‘거부쿠데타’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헌팅톤은 거부쿠데타(veto intervention)의 두 가지 상황을 “하나의 군이 반대하거나 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운동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과).....두번째는 권력을 쥔 정권이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군이 권력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집단에 호소력을 갖기 시작한 상황”(헌팅톤, 1986: 31-32)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990년 제1호 선언>은 첫번째의 상황에 해당하는 거부쿠데타인 것이다. <1990년의 제1호 선언>을 사실상의 거부쿠데타로 규정하는 이유는 NLD가 압승을 거둔 이 선거 결과가 SLORC의 주장대로 단지 국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만드는 데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NLD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의 헌법제정과 그에 이은 새로운 정치질서에서의 권력이 NLD에게로 귀속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누구도 정치적 경쟁의 결과를 사전적으로(ex ante) 확정하거나 사후적으로(ex post) 뒤집을 수 없을 때”(임혁백, 1991: 165) 비로서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한다면, 5월총선 이후의 미얀마는 전형적인 민주화의 역행사례가 되고 있다.

III. 정치엘리트의 역할: 아웅산수지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와중에서 해성과 같이 나타난 아웅산수지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기수이자 역압받는 미얀마 민중의 상징으로서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의 주요 관심대상 가운데 한 인물이 되어 있다. 아웅산수지가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야당지도자가 부재해 있었던 상황에서 미얀마 건국의 대부로 널리 추앙받고 있는 아웅산의 딸이라는 정치적 후광에 힘입은 것이었다.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서 아웅산수지와 NLD의 정치적 위상은 1990년 5월총선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 아웅산수지는 1990년 5월총선에서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1년 10월 노벨

평화상과 1995년 5월 네루상을 수상함으로써 미얀마의 야당 정치지도자 이상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1990년 5월총선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면서 아웅산수지와 NLD의 정치적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미얀마 군사정권의 시도는 국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전 가운데 특히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중요성은 5월총선에서 정치적 대안이자 반정부 구심점으로 등장한 그녀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반정부 민주화운동을 추동시켜 나갈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리더쉽은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군부통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번의 정치적 계기마다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구심성과 상징성을 확보하여 나간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역량은 1)처음에는 1988년 민주화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와중에서 부친인 아웅산의 후광을 입고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 나가는 데서 시작하여⁹⁾ 2)1990년 5월총선에서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NLD가 예상외의 압승을 거둬으로써 아웅산수지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에서 절정에 달했고, 3)SLORC의 1990년 5월 ‘거부쿠데타’ 이후에도 여전히 구금상태에 놓여 있는 아웅산수지의 억압적 상황이 미얀마 국민들의 정치적 억압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비중과 아웅산수지에 대한 SLORC의 과민반응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SLORC이 추진하고 있는 신헌법 초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미얀마 군부가 마련하고 있는 신헌법 초안에 미래의 대통령 자격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미얀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한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출마할 자격이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입성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SLORC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아웅산수지가 갖는 정치적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SLORC이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의도에 맞게 정치일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이는 신헌법제정 등 일련의 정치일정의 추진과 제도화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아웅산수지가 1988년 8월 미얀마 민주항쟁시 혜성처럼 나타나 그 이후의 미얀마 정

9) 아웅산수지가 1988년 민주항쟁시 민주화운동의 기수로서 급부상해 나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988년 당시 야당지도자로서 재등장한 세 사람 모두 미얀마국민들의 민주화 기대에 못 미치는 제약을 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우누 전총리는 나이가 81세의 고령이었고 아웅지나 턴우는 군출신으로서 한때 네윈정권에서 제 2인자였거나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웅산수지의 정치적 신선함이 크게 돋보일 수 있었다 (Fredholm, 1993: 63).

치에서 군부통치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웅산수지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위상과 개인적 역량이 한 몫을 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항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어 가던 1988년 8월 26일 아웅산수지는 최초의 대중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즉, 부친인 아웅산의 딸로서 “현금의 사태전개에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현금의 위기는 사실상 제2의 독립투쟁이라 불릴 수 있다”(Lintner, 1994: 279에서 재인용)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연설에서 아웅산수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미얀마에 살지 않아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국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미얀마의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1988년의 사태에서 그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표명함으로써 미얀마 국민들로부터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거둔다. 이 연설에서 아웅산수지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 언변으로 그녀의 부친과 같은 이미지와 호소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중적 정치지도자의 기틀을 다져 나간다.

아웅산수지가 미얀마 민주항쟁의 기수이자 대중정치인으로 변신함에 따라 미얀마 건국영웅인 아웅산의 후계자로서 자처해 왔던 네윈의 정치적 신화가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된다. 아웅산수지의 도전으로 인해 미얀마의 건국과정에서의 군의 역할과 1962년 미얀마 연방의 통합을 위한 군의 정치개입간의 연속성을 주장해 왔던 네윈정권의 정당화가 손상을 입게 되는 가운데 1988년 9월 6일 미얀마 건국의 ‘30인동지’ 가운데 생존해 있던 11인 중 9인이 네윈을 거부하면서 미얀마군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에 이르러서는 네윈의 신화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¹⁰⁾

1988년 SLORC의 쿠데타 이후 사실상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은 아웅산수지로 귀착된다. 1990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국적인 지지를 확충하고자 NLD의 사무총장으로서 아웅산수지는 1988년 10월 총 13일에 걸쳐 폐구,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50여개 도시의 성공적 지방순회에 힘입어 다시 12월에는 남동지역의 물메린을 그리고 1990년 1월과 2월에는 이라와디 델타지역과 테나세림 지역에 대한 순회를 통해 독자적인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 94).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온건하게 정치활동을 해 나가던 아웅산수지가 직접 네윈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공세를 취하게 된 계기는 1989년 6월 시위군중에 대한 발포 때문이었다. 아웅산수지의 네윈비판은 결국 1989년 7월 19일 아웅산 암살 42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싸고 NLD와 SLORC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날인 7월 20일 아웅산수지를 가택연금에 처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이에 이어 1990년 2월 아웅산수지의 피선거권 박탈은 아웅산수지에 대한 SLORC의 정치적

10) “Ne Win dumped by independence heros,” *Bangkok Post*, 7 Sept. 1988 (Lintner, 1994: 280 참조)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든 아웅산수지의 정치활동을 허용치 않은 SLORC의 필사적인 의도를 표출해 나가는 시작이기도 했다.

SLORC은 1995년 7월 10일 6년에 걸친 아웅산수지의 가택연금을 풀어준다. 아웅산수지의 가택연금 해제는 향후 미얀마가 정치적 개방으로 나아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웅산수지의 지적처럼 “나는 가택연금에서 풀렸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 외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Asian Bulletin September, 1995: 41)는 것은 그 이후 아웅산수지의 정치활동에 대한 SLORC의 정치탄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아웅산수지의 여행자유와 대형집회가 금지되고 있는가 하면 SLORC는 미얀마 정부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아웅산수지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질서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하여 NLD 관계자 191명을 검거하는 등 아웅산수지의 민주화투쟁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24일과 1996년 6월 9일). 이런 강압 상황에서 NLD의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웅쉐(Aung Shwe)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SLORC정권과의 신헌법 협상에 순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미얀마정치에 있어서의 군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정치현실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NLD 당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SLORC과 친분이 가까운 전직 군장교 출신이 많다는 점(Taylor, 1990: 68)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1996년 7월 연금에서 해제된 아웅산수지는 동년 10월 다시 NLD의 사무총장직에 복귀한다. 연금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여행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웅산수지는 자택에서 매주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토요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정치활동을 재개해 나간다.¹¹⁾ 이어 1995년 11월 아웅산수지의 지침에 따라 NLD는 신헌법초안 작성과정과 초안내용 모두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로 국민회의에서 탈퇴해 나간다. 연금에서 해제된 아웅산수지가 미얀마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SLORC 정부에게 제시하고 있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즉, 아웅산수지는 첫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여야 정치엘리트들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유용성과 둘째 1990년 선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미얀마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셋째 SLORC정부가 정치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을 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1)신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를 보류할 것¹²⁾과 2)모든 것은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3)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등 외국의 원조나 투자자들에게

11) 보통 5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참석하는 아웅산수지의 이 토요집회는 5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따르면 불법집회였지만, SLORC는 이 토요집회를 허용해 준다.

12) SLORC 정부의 1/90 선언에서 연명되었듯이 헌법제정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1990년 선거에서 뽑힌 대표 가운데 단지 15.24%만이 신헌법제정을 국민회의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민회의의 비민주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회의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웅산수지의 주장이다 (Guyot, 1996: 267).

대해 미얀마의 민주화가 시동을 걸 때까지는 원조나 투자를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¹³⁾, 4)소수종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Guyot, 1996: 265-266).

IV. 국제적 맥락의 압력

1988년 9월 SLORC의 집권 이래 미얀마에 대한 외국의 입장과 대응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과 EC 등 선진국들은 SLORC정부에 의해 취해지는 강제노동 이라든가 소수종족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범 석방과 1990년 선거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야간 대화를 요구하면서 SLORC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태국이나 싱가포르, 한국, 중국 등 SLORC정부의 대외경제개방에 부응하여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도모해 나가는 경우이다. 셋째,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이중노선”(Pilger, 1996: 277; Guyot, 1996: 272) 경우이다. 이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웅산수지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미얀마와의 경제관계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SLORC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태국을 필두로 하여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태국의 경우 SLORC의 집권 이후 외국인 고위관료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12월 14일 차오발릿(Chaovalit Yongchaiyut) 장군을 대표로 하여 군·언론·기업 등 80명의 사절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SLORC정부를 사실상 인정해 주는 댓가로 20개 지역에 걸쳐 총 1억 1,200만 달러에 달하는 16만톤의 티크와 50만톤의 목재 벌목권 등 많은 이권을 얻어냈다 (McDonald, 1990: 16-17). 중국도 1989년 버마공산당의 사실상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지난날의 중국공산당과 버마공산당간의 이념적, 정치적 유대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국과 미얀마정부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향후 미얀마가 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는 정도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다.¹⁴⁾ 중국 남서부 인구 3,700만의 운남성과의 국경무역은 1989년 8월 5일 공식

13)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민주화와 연계시키려는 아웅산수지의 전략은 그것이 SLORC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정도 만큼은 단기적으로 유용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1)정치민주화보다 경제성장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들로부터 미얀마의 외국인투자를 제약함으로써 빚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4)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공산품이 현재 미얀마 소비재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보듯이, 미얀마의 북부지역이 향후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미야 마웅(Maung, 1994: 455)은 미얀마 북부지역의 중국식민지화와 관련하여 이를 마치 버마의 영국식민지화와 비교하면서 1)미얀마의 중국식민지화는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서 SLORC정권의 용인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2)과거 버마의 영국식민지화는 3차례에 걸친 전쟁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식민지화 모두 인

협정이 체결되어 18만 달러의 중국산 분유와 비누, 치약 등을 구입하는 대가로 1,500톤의 옥수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 96). 아직 공식통계는 없으나 밀무역까지 포함하면 미얀마-중국간의 국경무역은 매년 최소 30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어, 그 규모는 정규무역의 3-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경무역이 미얀마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적 실리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세계자본주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권 국가들은 공식적인 대외적 언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대외적 압박을 가해 나가고 있다. 이들 서방권 국가들의 민주화 압력이 당장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의 국면에서는 이들 서방권 국가들로부터 제기하는 인권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경제제재의 위협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동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원정권 시대에 마약퇴치를 위해 매년 제공하던 1,25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중지한 데 이어(Lintner, 1994: 286), 1990년 4월 25일 다니엘 모이니한(Daniel Moynihan) 상원의원의 발의하에 미얀마에 대한 무역제재를 촉구하는 미상원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5월 총선 이후에도 군부통치가 지속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1)1991년 4월과 1991년 10월에 미국상원은 미얀마 인권탄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2)1991년 7월 부시행정부는 무기수출금지, 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중지, 섬유쿼터 쌍무협정 중단¹⁵⁾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했으며, 3)EC¹⁶⁾와 일본¹⁷⁾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신흥공업국가와 아세안국가 그리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4)클린턴 대통령이 주재하는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식 리셉션에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이유로 미얀마를 초청에서 제외하는(Guyot, 1996: 275)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상원은 1996년 7월 25일 SLORC정권의 민주인사 탄압과 관련하여 <미얀마제재안>

도인과 중국인의 대대적인 인력 및 자본의 침투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 섬유쿼터 쌍무협정 중단으로 인해 1991년 미얀마의 대미 섬유수출은 1990년에 비해 26%의 물량감소를 보이게 된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2: 91).

16) 유럽연합의 의회도 EC 국가들에 대해 1990년 9월 13일 미얀마의 민주적 권력이양을 촉구하면서 EC국가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대미얀마 무역제재를 결의함으로써 미국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

17) 미얀마 제1의 원조공여국인 일본은 1988년 군부쿠데타 이후 일시 미얀마에 대한 차관공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1989년 2월 군사정부를 승인하고는 1990년 5월 7개 프로젝트사업(발전소 건설, 철도근대화, 관개사업, 설탕공장사업 등)을 재개하여 나갔지만, 다시 1991년 7월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이를 중단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174-175).

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야당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증가하거나 또는 아웅산수지에 대한 망명, 체포,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신규투자 금지조치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6년 7월 27일).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과의 연관하에 일본도 1996년 7월 26일 SLORC에게 야당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차 미얀마에 대한 일본의 원조계획을 민주화 과정과 연계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6년 7월 27일).

이와 같은 미국의 직·간접적인 대미얀마 제재조치는 SLORC으로 하여금 아웅산수지의 석방과 인권문제의 개선 그리고 민주화 일정의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세계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 중요한 추동력을 갖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개되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라는 기대가 클 때 더욱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의 규모가 적고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제재의 해제가 갖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라든가 원조 또는 무역규모의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라는 측면이 향후 미얀마의 민주화에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Guyot, 1996: 275).

미국 이외에도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하나는 미얀마의 인접국가인 인도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인도는 1988년 9월 10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인민들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언명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며, 태국과는 달리 SLORC의 쿠데타 이후에는 마니퍼(Manipur)와 미조람(Misoram) 지방에 미얀마 민주인사들의 도피처를 제공해 주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 97). 그리고 1989년 8월 4일에는 인도 외무장관이 SLORC정부에 대해 연금상태에 놓여있는 아웅산수지와 탄우를 풀어주도록 촉구하는 등 인도는 미국과 더불어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중요한 국제적 압력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인도 역시도 부분적으로는 미얀마와 밀착의 도를 높이면서 벵갈만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SLORC정부에 대해 보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99).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1991년 10월 아웅산수지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는 아웅산수지를 통해 미얀마의 억압적 인권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 이전에도 1990년 12월과 1991년 9월 두 번에 걸쳐 아웅산수지의 연금해제를 촉구하는 켈라르 유엔사무총장의 공식 언명이 있었고 이어 1991년 11월 유엔총회는 아웅산수지의 연금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한다.¹⁸⁾ 이어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는 SLORC정부에 대해 아웅산수지를 포함한 다른 정치범들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함께 “1990년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에 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 96에서 재인용)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한다. 그러나 SLORC은 이러한 유엔의 결의와 요구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아웅산수지의 연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강경 자세를 견지해 나간다.

그러나 미얀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절대 필요로 하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쟁점으로서의 아웅산수지의 연금해제 문제는 SLORC정부가 마냥 강경 자세만 고집하는 것으로는 실익이 적은 것이었다. 1988년 이후 그리고 1990년 총선 이후의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도 일부 지역 군사령관을 중앙부서의 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제도로서의 군의 단합과 회유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SLORC으로서 어떤 형태의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 1994년 9월 20일 탄쇄장군과 민눈트중장이 처음으로 아웅산수지와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린트너, 1995: 117), 이처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수지와 대화를 갖게 된 것은 국제적 압력 이외에도 군부권력의 공고화에 대한 SLORC의 이러한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1990년 총선 이후 온갖 회유와 협박 그리고 철폐·구금을 통해 “국민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NLD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수를 86명으로 줄일 수 있음”(Callahan, 1996: 159)으로 해서 그리고 1995년 1월 반정부 세력의 거점인 마너플라워를 점령함으로써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세력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판단되는 한, 아웅산수지의 해금에 따른 정치적 위험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SLORC은 부분적으로는 1995년 7월말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문제가 논의되는 데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일환으로 미국의회가 미얀마와 체결되어 있는 모든 경제계약을 전면 파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가기 전날인 1995년 7월 10일 아웅산수지의 가택연금을 해제하기에 이른다.

다만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미국, EC 등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1980년대 니카라과의 경우와는 달리 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미얀마의 경우에는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일부 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서방권의 경제제재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얀마에 대해 값싼 소비물자와 무기 등을 공급해 주는 등 미얀마 최대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역할을 해 줄 뿐만 아니라 SLORC정부의 대외홍보와 대외관계를 자문해 주는 정치적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천안문사태로 인한 정치적 억압과 인권문제에 대해 동일한 수세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는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 동병상련의 외교적

18) 유엔총회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에 이어 아웅산수지가 두번째이다.

지원을 해 주는 한, 미얀마에 대한 서방권의 민주화 압력은 그만큼 제한적이게 된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들이 SLORC정부에 대한 비난과 거부를 촉구하는 서방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¹⁹⁾과 경제적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미얀마의 군부통치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²⁰⁾

그러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세안국가들의 건설적 개입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SLORC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이래 자국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나가는 만큼이나 태국은 한편으로는 SLORC정부와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웅산수지의 석방을 촉구하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회합을 허용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태국이 자국의 민주화 진전 만큼이나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미얀마와 태국간의 경제적 교류관계도 냉각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미얀마와의 경제적 교류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예를 들면 1993년 5월 킨눈중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싱가포르정부의 공식 초청이 아닌 싱가포르 부수상의 초청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폄하하는 등 SLORC정부와의 밀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98). 이렇게 볼 때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 정책은 눈앞의 경제적 실리를 놓지 않으면서도 미얀마의 국내정치적 요인에는 한발짝 물러나 있음으로 해서 향후의 미얀마 국내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떻든 미얀마가 국제적 압력에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국가들의 ‘건설적 개입’ 정책 못지 않게 미국이나 인도 등 미얀마에 비판적인 국가들이 SLORC정부에 대해 정치·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미얀마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서방권 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국가이면서도 미얀마로부터의 수입이 1988년의 5,700만 달러에서 1991년에 1억달러 - 이에 반해 미얀마로의 수출은 570만 달러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에 이르는 데에서 보듯이 미얀마와의 경제교류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3: 94). 1988년 이래 SLORC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도 1992년 한해만 해도 석유, 가스, 어류 등에 1억 6,37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미얀마 해외투

19)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정책에 내재하여 있는 진정한 정치적 의도는 미얀마의 민주화 보다는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와 중국간의 관계가 긴밀해져 감에 따라 미얀마를 통한 중국의 남진이 아세안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든 미얀마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데에 건설적 개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 97).

20)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의 회교권 국가들이 SLORC정부에 대해 덜 우호적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SLORC의 탄압으로 인해 26만에 달하는 회교도 로힝야 소수종족의 난민화가 발생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자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3: 94).

이처럼 1988년의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1990년의 총선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SLORC 정부에 대한 서방권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SLORC정부가 장기간 군부 통치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리력을 통한 국민통제와 함께 이를 용인해 주는 중국과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지원 때문이다. 이 점에서 미얀마는 민주화를 위한 국제적 압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V. 결 론

‘시간이 멈춘 땅’으로 묘사되는 미얀마에서 민주화 가능성을 찾는 작업은 하나의 소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전화시켜 보는 3가지 정치적 동학을 살펴 보았다. 2000년대의 미얀마를 염두에 두면서 이 논문은 1988년 이후 미얀마에서 진행된 중요한 몇 가지 정치 과정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파급효과와 아웅산수지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압력이 어떤 특성의 계기 속에서 민주화 내지는 정치적 개방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주화와 관련하여 미얀마의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조명해 보는 이 논문의 작업이 유의미한 또 하나의 이유는 민주정권과 구별되는 군부통치의 내재적 제약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왜 권위주의정권은 민주정권과는 달리 그 정당성을 위한 동일한 지속적인 혜택을 성공적인 경제업적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권위주의의 “정당성 모순”²¹⁾이 그것이다. 1)만약에 권위주의정권이 어떠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업적이 권력장악의 유일한 정당화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정권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2)한국이나 벨라스코하의 페루처럼 권위주의정권이 일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수행한다면 권위주의정권은 권위주의가 종식되어야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대중들의 정치적 참여 열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3)마찬가지로 만약에 권위주의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장악을 정당화했던 결정적인 위협이나 도전(예를 들면 반란이라든가 정치적 테러, 무장폭동 등)을 해결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이해를 가진 세대가 권위주의정권을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권위주의정권은 불필요하게 되어 존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권위주의정권은 그 존재 이유를 천년왕국의 성립이라든가 경제성장의 조속한 달성 또는 국가안보와 같은 특성의 목표와 연관짓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특성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도 권위주의의 기능적 효용성이 다 끝난 것으로 간주되면서 정당화의 다른 계기

21) Diamond, 1989: 150.

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내재적 제약을 안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정당화의 방책 가운데 하나가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민주화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옥. 1989. 「버마식 사회주의의 경제파탄 과정」.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엮음. 『버마현대사: 버마식 사회주의와 미얀마 민중항쟁』. 서울: 소나무.
- 노부요시, 니시자와. 1989. 「네원정권의 개발정책과 경제실적: 1962-74년 경제정책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엮음. 『버마현대사: 버마식 사회주의와 미얀마 민중항쟁』. 서울: 소나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미얀마편람』. 서울: 오름시스템.
- 데이비스, J. C. 1984. 「J곡선 혁명이론」. 신용하 편. 『혁명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린트너, 버털. 1995. 「최근의 미얀마 정치상황」. 코라손 아키노·아리아스 산체스·김대중 공편. 『아시아 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엮음. 1989. 「버마민중항쟁일지」. 『버마현대사: 버마식 사회주의와 미얀마 민중항쟁』. 부록 II. 서울: 소나무.
- 스테판, 알프레드 저. 이수훈·김기석 공역. 1989. 『군부정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열음사.
- 신봉길. 1991. 『시간이 멈춘 땅 미얀마』. 서울: 한나래.
- 임혁백. 1991. 「민주화비교연구 서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3호.
- 헌팅턴, 사무엘 P. 1986. 「집정관주의와 정치적 쇠퇴」. 김영명 편저. 『군부정치론』, 서울: 녹두. 『세계일보』. 1996년 7월 27일.
- 『한겨레신문』. 1996년 5월 24일.
- 『한겨레신문』. 1996년 6월 9일.
- Asian Bulletin*. 1995. Vol.20. No.9. September 1995.
- Bryce, James. 1921. *Modern Democracies*. Vol.II.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Callahan, Mary P. 1996. "Myanmar in 1995: Looking Beyond the Release of Aung San Suu Kyi." *Asian Survey*. February.
- Diamond, Larry. 1989. "Beyond Authoritarianism and Totalitarianism : Strategies for Democratiz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12. No.1. (Winter).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 *Asia 1990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_____. 1992. *Asia 1990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_____. 1993. *Asia 1993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_____. 1994. *Asia 1994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_____. 1995. *Asia 1995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_____. 1996. *Asia 1996 Yearbook*. Hongkong: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 Fredholm, Michael. 1993. *Burma: Ethnicity and Insurgency*.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Guyot, James F. 1996. "Myanmar: Several Endings, No Clear Beginnings." *Southeast Asian Affairs 1996*.
- _____. 1991. "Myanmar in 1990: The Unconsummated Election." *Asian Survey*. February.
- Lintner, Bertil. 1994. *Burma in Revolt: Opium and Insurgency Since 1948*. Boulder: Westview Press.
- McDonald, Hamish. 1990. "Partners in Plund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2 February.
- Maung, Mya. 1990. "The Burmese Road from the Union of Burma to Myanmar." *Asian Survey*. June.
- O'Brien, Harriet. 1991. *Forgotten Land: A Rediscovery of Burma*. London: Michael Joseph.
- Pilger, John. 1996. "The Betrayal of Burma." *The World Today*. Vol.52. No.11. November.
- Pye, Lucian W. 1990. "Political Science and the Crisis of Authoritarian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4. No.1. March.
- Steinberg, David I. 1990. *The Future of Burma: Crisis and Choice in Myanmar*.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Taylor, Robert H. 1990. "Burma's Ambiguous Breakthrough." *Journal of Democracy*. Vol.1. No.4. (Fall).
- Weller, Marc. 1993. *Democracy and Politics in Burma: A Collective of Documents*. Thailand: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of the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Political Dynamics of the Possible Democratization of Myanmar

Gil-Hyun Yang

Kyungnam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This paper explores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for the democratization of Myanmar in the context of the “art of the possible,” despite structural constraints.

This paper focuses on three dimension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Myanmar in the 1990s.

1) The pressure on SLORC to implement political reforms since the outbreak of the 198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The 1988 democratization awakene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 of Myanmar, disseminated the value of democracy, settled on multiparty elections as a compromise and damaged the legitimacy of the military rule. The 1990 election signaled the rebirth of “political society” and the military government’s defeat in the 1990 elections positioned the NLD as a political alternative to the SLORC.

2) Aung San Suu Kyi’s potential as a unifying force for various anti-government groups: Suu Kyi insists on the cancellation of the National Conven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NLD and SLORC. She says the NLD should lead the constitution build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1990 elections.

3) SLORC’s necessity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pursue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ic liberalization: Especially, the U.S. applies pressure on the SLORC to improve the situation of Myanmar’s human rights. SLORC has to respond to foreign countries’ pressure to introduce certain democratic processes because Myanmar needs foreign assistances.

